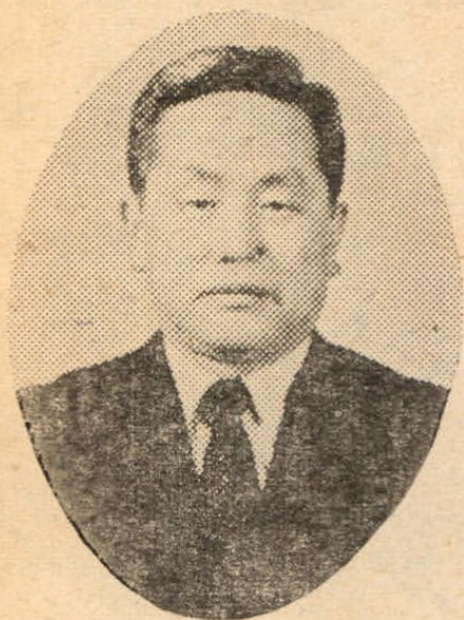


오늘날의 교육과 그 성과



교 장 이 동 욱

나는 오늘도 인간들의 교육과 그 성과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나 자신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기에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겠지만 그보다는 주위의 정경이 더 많은 문제를 던져주는것 같이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육과 그 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한탄스러운 심정을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래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시켜 가면서 이야기 해 왔읍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읍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교육과 관련되어 기록 연구되고 또 결론을 내려 보았지만 교육이 진정으로 바라는 인간의 변화가 진실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극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나는 여기서 교육의 결과가 가져온 학술적, 경제적, 또는 과학적인 성장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근래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간의 정신 문화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아직은 긍정적인 해답을 못 얻었다고 하는 답답한 심정을 말해보고 싶을 뿐입니다.

2,3년 전엔가 서울의 어떤 윤리학 전공 교수에게서 구라파의 문명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여행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꽤 젊은 편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뜻 깊게 들은 기억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아직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구라파의 문화가 파탄에 직면하였다고 하는 사실과, 미대륙에서의 인간정신 문화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하건데, 나는

결코 지금 비판론자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밝은 면을 애써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 먼저도 말한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적용이 시도되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성장의 방법으로서의 학습을 위한 이론이 다원적으로 전개되었고 또 학습을 위한 도구의 발달이 공학적으로 하나의 문화면으로 발달할 정도로 전개돼가고 있는 사실들을 봅니다. 즉, 인간의 학습에 관한 심리학적인 연구가 오늘 날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로부터 거의 의학내지 해부학에 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납득이 가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인간의 학습이 그렇게 비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근원을 캐어보고 생각하다 보니 인간의 구조자체를 해부해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교육학이 아니라 의학내지는 해부학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가려는지 앞으로 수십년이 크게 주목이 됩니다. 이처럼 연구되고 발달되고 하는 동안에 과연 인간들의 생활현상은 얼마만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진 문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 좁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은 지난 이야기요, 이제 는 본인의 결심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가 교육의 수준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살펴 볼때, 나로서는 극히 어두운 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새삼 가치론을 쳐들려 하진 않습니다. 인종과 지역과 그 배경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 분명한 문화가 지금 막 허물어져가고 있지 않은가 교육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문화 아니 그 인간의 가치자체가 막 쓰러져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펍 심각한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 일들을 추상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로 시종된 글을 써야 했던 자신에게 아직도 많은 부족을 느끼면서 보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가운데 얻어진 한 토막의 심경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미국에 계신 교장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